

법무매거진

“소장님 덕에 비 그쳤네요.”

헌법재판관의 이 발언에 술렁이는 헌재



- 워크숍서 헌재소장 띄워주기... 직장에선 혼한 일이지만
- 한명 한명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재선 '이례적 상황'으로 논란
- 법조계 '헌법재판소의 역할, 유남석 헌재소장에 과도하게 쏠린듯'

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은 작년 11월 충남 예산으로 워크숍을 갔다. 재판관들이 그날 오전 버스를 함께 타고 서울에서 출발할 땐 비가 내렸다. 그런데 예산의 수덕사에 도착할 때쯤 비가 그쳐 재판관들은 우산을 쓰지 않고 수덕사 경내를 둘러봤다. 이후 재판관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올랐을 때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한다. 그때 일부 재판관이 유 소장을 향해 “소장님 덕분에 (경내를 둘러볼 때) 비가 그친 것 같다.”는 취지의 ‘아부성’ 말을 했다고 한다.

이 정도 말은 상사와 부하들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우스갯소리라고 할 수 있다.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는 헌재소장과 재판관들 사이에 도저히 오갈 수 없는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. 헌재소장과 재판관은 한 명, 한 명이 헌법기관이다. 상하 관계로 얽혀 있지 않다. 이 농담이 얼마나 ‘상례를 벗어난 것’으

로 여겼던지 헌재 연구관들에게 이 대화가 과도하게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. 심지어 전직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.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“적잖은 헌재 구성원은 이 일을 헌법재판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본다.”고 말했다.

한 헌재 연구관은 “동기 법조인이나 친한 사람들이 사석에서 ‘요즘 헌재는 어떠냐’고 물어올 때 이 일을 자주 말한다.”고 했다. 대법원과 함께 국내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비중이 헌재소장 한 명에게 과도하게 쏠려 있는 현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란 것이다.

그동안 헌법재판관은 대부분 경력이 오래된 법조인으로 채워졌다. 법원에서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, 검찰에선 고검장·지검장 등이 헌법재판관으로 가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있었다. 면면이 실력과 경륜을 갖춘 인물이



라는 데 별 이론이 없었다. 현재소장은 대외적으로는 현재를 대표하지만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을 논의하는 내부 評議에선 재판관 9명 중 1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. 현재 관계자는 “평의 과정에서 현재소장의 논리를 다른 재판관이 그 자리에서 반박하거나, 반박 자료 수집을 연구관에게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다.”고 말했다.

지금 현재에선 이런 모습이 전에 비해 줄었다는 평가가 현재 안팎에서 많이 나온다.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‘인사가 가장 큰 원인일 것’이라고 했다. 현 정권 들어 이뤄진 헌법재판관 인사에선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곧바로 헌법재판관이 되거나 순수 재야 출

신 변호사가 재판관으로 임명됐다. 물론 다양성 차원에서 이런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. 다만 법조계 인사들은 “헌법 관련 경륜·지식 등에서 재판관들 사이의 차이가 클 수 있다.”고 했다. 한 원로 변호사는 “유남석 현재소장은 판사 재직 때부터 헌법 전문가로 평가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내에서 발언권이 전보다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.”고 했다. 복수의 전직 재판관은 “현 정권 인사 패턴을 고려하면 유 소장 한 명에게 점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고, 이는 현재 다양성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는 우려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었다.”고 했다.

(출처/조선일보)